

배포 일시	2023. 2. 13.(월)			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장이슬 (044-201-4441)
			주무관	구현승 (044-201-4529)
보도일시	2023년 2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1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뉴:홈 첫 사전청약 특별공급 11.1 대 1로 마감

- 고양창릉, 양정역세권, 남양주진접2 나눔형 12.8대1, 일반형 3.4대1 -
- 나눔형 중 청년 특별공급 36.5대1로 높은 경쟁률로 마감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뉴:홈(공공분양 50만호)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, 양정역세권,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, 접수결과 1,381호 특별공급에 15,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사전청약은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작년 10월 26일 “청년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”을 통해 발표한 청년주택이 반영된 첫 공급으로, 사전청약 누리집(사전청약.kr) 누적방문자가('22.10.26 이후) 314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.
- 특별공급 접수결과 평균경쟁률은 11.1대1(나눔형 12.8대1, 일반형 3.4대1)을 기록하였으며, 나눔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(36.5대1)이 신혼부부(7.2대1)와 생애최초(7.8대1)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뉴:홈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.
- 고양창릉_{나눔형}은 17.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, 유형별로는 청년 52.5대1, 신혼부부 9.7대1, 생애최초 10.2대1을 기록하였다. 평형별

로는 청년의 경우 전용 59㎡에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,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전용 84㎡가 타 평형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.

- 양정역세권_{나눔형}의 경우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, 유형별로는 청년 11.3대1, 신혼부부 3.3대1, 생애최초 4.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. 평형별로는 전용 84㎡가 6.7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.
- 이번 사전청약에서 유일한 일반형인 남양주진접2의 경우 3.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, 유형별로는 생애최초가 5.6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형별로는 59㎡가 3.9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.
- 자세한 특별공급 최종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.

구분	지구	단지(BL)	주택형(m²)	접수(호)	공급(호)	경쟁률
합 계				15,353	1,381	11.1
나눔형 (1,129호)	소 계			14,497	1,129	12.8
	고양창릉	계		12,314	694	17.7
		S3	46	360	13	27.7
			55	748	136	5.5
			59	7,789	355	21.9
			74	296	39	7.6
		84	3,121	151	20.7	
	양정역세권	계		2,183	435	5.0
		S5	59	1,132	205	5.5
			74	258	111	2.3
84			793	119	6.7	
소 계				856	252	3.4
일반형 (252호)	계			856	252	3.4
	남양주진접2	A7	55	58	48	1.2
			59	798	204	3.9

- 고양창릉, 양정역세권, 남양주진접2의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는 2월 13일부터 시작하여 2월 17일에 마감되며,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2월 27일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접수가 시작된다.
- 고양창릉, 양정역세권, 남양주진접2는 3월 30일, 고덕강일 3단지는 3월 23일에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, 당첨자 발표 후 소득·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뉴:홈(공공분양 50만호)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희망 복원을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이번 특별공급 결과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”며,
- “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일반공급과 향후 진행예정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접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